

# 충장로 일원 중대형 상가 공실률 2분기 연속 감소

반년간 31.02%서 24.97%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 효과 코로나 후 가장 낮은 공실률 동구 "옛 명성 회복하겠다"

광주 동구 충장로 일원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분기 연속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가 침체된 충장로 주변 상권 회복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가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공표자료에 따르면 충장

·금남로 일원 3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이 330㎡(100평)를 초과하는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분기 31.02%에서 3분기 24.97%로 6.05% 감소했다. 지난 2022년 1/4분기 24.03% 이래로 가장 낮은 공실률이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빠른 속도로 상권이 회복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2층 이하 연면적 330㎡(100평) 미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 역시 15.26%로 직전 분기(16.09%)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최대 상권'으로 오랜 기간 호황

을 누려온 충장로는 과거 광주 최고의 번화가이자 대표 상권이었지만 온·오프라인 소비트렌드 변화, 도심공동화, 코로나 19 장기화 등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구 감소와 함께 공실률 증가까지 이어져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동구는 △매월 개최되는 '라운 페스타' △4개 콘셉트의 골목여행 △충장로 방문 여행자의 상권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충장의 집(ZIP)' △K-POP 콘텐츠를 통한 MZ세대들의 고요문화 형성을 위한 'K-POP 공유카페' 조성 △핵심포 및 마을백화점 조성 등 상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충장로 1·2·3가 일원에 젊은 세대

의 발길을 이끄는 유명 프랜차이즈 식음료와 패션업소 등 핵심포 입점 사업을 추진하고, 충장로 4·5가 일원에는 신 활력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 주·야간 상시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점포를 유치하는 등 충장로의 빈 점포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최근 점진적으로 불고 있는 충장로의 신규입점 증가 추세에 발맞춰 상권 내 빈 점포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충장로가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ilbo.com



## '서구청 펜싱팀 펜싱교실' 호응 서구, 시민 대상 펜싱 저변 확대

광주 서구는 지난 2일 영주체육관 펜싱 훈련장에서 서구청 펜싱팀과 함께하는 펜싱교실을 개최했다.

2022년부터 운영된 펜싱교실은 주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펜싱이라는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광주 서구청 펜싱팀인 국가대표 강영미, 김재원 선수 등의 재능기부로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 펜싱교실은 4·11월까지 △꿈나무(어린이)반 △펜린이(성인)반 △가족반으로 참여 대상을 나눠 그에 적합한 교육을 진행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꿈나무(어린이)반은 4·6월에 진행되어 아이들이 펜싱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며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펜린이(성인)반은 6·7월에 운영, 성인들의 펜싱 도전을 도와 취미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참가자 전원이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하며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족반은 7·11월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펜싱을 즐기며 몸으로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이형숙 체육관광과장은 "서구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유대감 형성에 기여할 계획이다"며 "2025년 펜싱교실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상이기자



## 무장애 평생학습도시 성과 공유회 서구, 학습자 등 100여명 참석

광주 서구는 지난달 31일 서구청에서 장애인 시설 단체 및 협의체 등과 함께 '2024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3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및 무장애 평생학습도시 서구 조성에 기여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단체, 학습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가입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인증 현판식을 시작으로 △3년간 사업 성과 △장애인 평생교육발전 유공표창 △학습자 성과발표 △장애인 평생학습기관 우수사례 발표 △한국장애인 평생교육연구소장 특강 순으로 진행돼 기관별 사업성과와 학습 경험을 나눴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지난 2022년 교육부가 장애인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구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선정돼 국비 총 1억8000만원을 확보해 무장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구는 그동안 장애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간보호센터 등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난 3년간 총 82개 강좌를 개설, 1931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 장애인의 알 권리, 배울 권리, 일할 권리, 누릴 권리를 반영한 30개의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자리 연계, 학습동아리 구성 등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형식적인 차원의 복지가 아니라 늘 따뜻하게 진심으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정책을 세심하게 펼쳐가고 있다"며 "주민 모두가 배우고자 할 때 어려움이 없는 무장애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남녘노소 누구나 배움으로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기자



광주 남구는 오는 19일 진행되는 '2024 일자리 박람회'를 맞아 온라인 채용관을 병행 운영한다. 광주 남구 제공

## 남구, '2024 일자리 박람회' 온라인 채용관 운영

6일부터 20일까지

광주 남구는 오는 19일 진행되는 '2024 일자리 박람회'를 맞아 온라인 채용관을 병행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박람회 현장과 더불어 현장방문이 어려운 구직자와 구인 업체를 위해 온라인 박람회를 병행해 치러진다.

남구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채용 정보와 구직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채용관 전용 사이트(http://namgu.srbjobfair.co.kr)를 구축했다.

사이트는 일자리 박람회 시작 전인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채용관에서는 광주·전남 소재 기업의 채용 공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직자 편의 제공을 위해 채용 분야별 카테고리로 나눠 직무 선택의 용이성을 높였으며, 채용 절차도 근무조건과 전형 단계 등이 정리돼 지원자들이 손쉽게 구직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구직자는 입사를 희망하는 구인 업체에 채용 지원서와 이력서를 곧바로 넣을 수 있으며, 입사 지원에 필요한 서류 서식은 온라인 채용관 전용 사이트에서 곧바로 내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 채용관 전용 사이트 접속은 인터넷에 해당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거나, 남구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와 사랑방닷컴 홈페이지(www.sarangbang.com) 배너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취업에 필요한 절차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구직·구인 정보가 한곳에 모이기 때문에 구직자와 구인 업체간 온라인 소통도 더욱 편리하게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 광산구, 기후위기 취약계층 위한 기후적응시설 조성

사업비 11억5000만원 투입

광주 광산구가 환경부 '2025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기후재난 사전 대비를 위한 사업비 11억5000여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 '2025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은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계층, 지역의 '기후적응'을 돕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광산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취약가구·시설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53개소, 2억5000만원)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색공간조성사업(1개소, 3억원) △소규모 사업장 주변 지역 폭염 대응 쉼터 및 소규모 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2400만원이다.

또 광산구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폭염 대응 시설물 설치를 위한 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4억22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 16개 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도장하고, 시민

이 이용하는 공원 2곳에 안개 분사기(쿨링포그)를 설치하는 등 시원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광산구는 올해 8000만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10가구, 경로당 2개소를 대상으로 옥상에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급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후위기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우수기관 복구, 호남 유일 선정

광주 북구가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영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영평가는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 등에 헌신한 기관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별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참여를 편차를 해소하고자 시행된 평가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31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참여자 수, 온실가스 감축량 등 제도 운영 실적을 평가위원회가 심사해 총 3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는 이번 평가에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가입률이 다소 저조한 소상공인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를 비롯해 각종 행사,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안내로 주민 참여율을 높였다고 평가받았다.

또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우수 아파트 조명기기 고효율 LED 교체 사업'은 제도 가입 주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함께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시킨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이에 북구는 제도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으며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윤준명 기자